

殷夫 詩에 나타난 헌신과 사랑의 문제

김 정 숙*

<목 차>

1. 서론
2. 투사적 헌신과 이타적 자아의 발견
3. 사랑의 확산과 연대의식(동지애)의 작동
4. 사회적 자의식을 통한 실제적 희열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1930년대 혁명문학 시기 좌익리얼리즘을 깊이 있게 그려낸 殷夫(1910~1931)의 시에 나타난 헌신과 사랑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는 초기 프롤레타리아 혁명 시 계열에서 시가예술에 정치이념을 가장 잘 녹여냈고¹⁾ 혁명문학으로서 언어에 관한 자각을 토대로 혁명문학의 초석을 놓는데 큰 몫을 했다.

殷夫는 그의 나이 14세이던 1924년 <전족을 푼 시대의 발자국 放脚時代的足印>으로 시의 창작을 시작하여 1931년 2월 22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약 7년간 98편의 시를 남겼다. 65편은 죽기 1년 전에 자신이 펴낸 《아이들 탑 孩子塔》에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33편은 1951년에 출간된 《인푸 선집 殷夫選集》에 실려 있다.

* 숭실대학교 초빙교수(jsjin726@naver.com)

1) 張新, 《20世紀中國新詩史》, 復旦大學出版社, 2009, 139쪽.

인푸의 개인적 삶은 짧게 허락된 삶만큼이나 힘든 여정이었다. 인푸는 상하이 民立 중학, 浦東 중학을 거쳐 同濟 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전공하지만, ‘五·卅’(1925) 운동²⁾, ‘4·12 사건’(1927) 등에 직접 투신하면서 3차에 걸친 감옥 생활을 겪으며 동시대인으로서의 소명과 헌신을 생각했을 것이고, 좌·우 갈등의 상황은 혁명문학 활동에 많은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다. 좌·우 갈등의 공간에서 좌익작가연맹(左翼作家聯盟, 이후 좌련, 1930. 3. 2)에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여 활동하다가 1931년 2월 7일 저녁 러우스(柔石), 후에핀(胡也頻), 펑경(馮鏗), 리웨이썬(李偉森) 등과 함께 국민당에 의해 살해되었다. 중국 현대사에서 이들은 ‘좌련 5열사’로 지칭된다.

본 논문은 인푸의 인생과 문학이 가진 혁명적 요소에 관심을 두고 그의 시에서 드러나는 헌신과 사랑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시의 형식이나 표현상의 기교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시인의 시대의식, 개인적 체험을 통한 문학적 실험 등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殷夫 시에 드러난 혁명적 내면의식에 대한 연구는 희생, 투쟁, 연민, 정치적 서정, 죽음, 열사 등에 관한 논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우쓰징(吳思敬), 후위안(胡源), 황젠(黃健), 런쑤(任愨) 등이 대표적이다. 우쓰징은 인푸의 시에 나타난 자아의 희생과 죽음을 탐구하였고,³⁾ 후위안은 투쟁과 혁명의식에 주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친을 향한 염려를 통해 드러낸 인간적 연민을 고찰하였다.⁴⁾ 황젠은 초기 프롤레타리아 혁명시가 도외시 했던 정치적 서정으로 창조한 개성을 탐색하였고,⁵⁾ 런쑤는 혁명을 향한 민중의 당당한 소리에 대해 주목하였다.⁶⁾

이러한 논의들은 인푸 시에 나타난 비판적 세계관 혹은 투쟁의지를 자세히

-
- 2) ‘五·卅’(1925) 운동, 즉 ‘5·30’운동은 상하이 방직공장의 일본인 감독이 여공을 학대한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이다.
 - 3) 吳思敬, <還原殷夫的藝術個性>,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9期, 首都師範大學中國是今研究中心, 2011.
 - 4) 胡源, <紅色鼓動詩的前奏曲——殷夫的長詩《在死神未到之前》>, 《新余高專學報》 第11卷第4期, 2006.
 - 5) 黃健, <論殷夫政治抒情詩的創作個性>, 《浙江旅游職業學院學報》 第8卷第1期, 2012.
 - 6) 任愨, <“別一世界”的雄聲——論殷夫的詩>, 《新余高專學報》 第3期, 齊齊哈爾師範學院學報, 1983.

드러내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들의 논의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헌신과 사랑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푸 시의 내면의식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초기 시에 드러난 순정함과 헌신의식이 홍색고동시(紅色鼓動詩)로 심화하였고, 홍색고동시에 나타난 비판의식이 혁명에의 열정과 종교적 희생의 체험 및 이타적 사랑의 형상화를 낳는 요인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투사적 헌신과 이타적 자아의 발견

인푸는 혁명시대의 이타적 삶 속에서 투쟁과 헌신을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했다. 그가 시를 창작하던 초기부터 정치 서정시의 세계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이러한 내면의식과 연관이 있다. 인푸의 정치 서정시는 동시대인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투신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푸는 친사회적인 이타적 세계가 혁명가로 나선 이후에도 자신의 내부에서 살아나기를 갈망하였다. 살아남, 즉 “생명이 지닌 아름다운 면에 대한 동경과 생명 박동에 대한 또렷한 궤적은 인푸의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점”⁷⁾이라고 생각할 때 초기 시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향한 투신을 형상화하는 정치 서정시에 집중한 인푸의 내면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인푸의 정치 서정시는 문학사에서의 평가와 더불어 그의 작품세계의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인푸는 1929년 ‘五·卅’(1925) 운동을 기억하며 《拓荒者》(第4, 5期合刊, 1930. 5)를 통해 발표한 <혈서 血字>로 묶은 7편의 시 <혈서 血字>, <의식의 선율 意識的旋律>, <어떤 붉은 웃음 一個紅的笑>, <상하이 예찬 上海禮贊>, <봄날의 거리 春天的街頭>, <형제여 안녕 別了, 哥哥>, <도시의 황혼 都市的黃昏> 등의 정치 서정시는 더욱 그 의미가 깊다. 인푸가 이들 정치 서정시를 통해서 “결전”, “죽음”, “생명”, “사랑”, “시대의 가시”, “마음을 찌

7) 吳思敬, <還原殷夫的藝術個性>, 앞의 글, 124쪽.

르는 풍자”, “흉악한 빈곤” 등 사회적 언어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타적 세계에 참여하려는 의식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타적 세계에 집중하는 정치 서정시의 내면의식은 ‘홍색고동시의 전주곡’⁸⁾으로 지칭되는 <사망의 신이 오기 전에>在死神未到之前>의 투사적 이미지를 통해 혁명 투쟁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작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당신 아들은 불효자/ 끈고한 어머니 봉양하지 못하고/ 영영 이별합니다. 어머니/ 뜨겁게 요동치는 이내 마음 거뒀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당신 아들의 차가운 입술인 이 땅에다/ 안녕하고 입 맞춥니다, 어머니/ 나의 평강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잘 있게, 친구, 슬퍼하지 말게/ 자네만은 알아주시게, 쓰라린 내 마음을 / 나를 기다리는 죽음을/ 죽음과 함께 있을 광명을// 잘 있게, 영원히 작별하세/ 얼른 가야하네, 혁명을 배우러/ 사람 구실하러 애써 떠나가니/ 내 심사를 부질없이 고대하지 말게⁹⁾

위의 시는 인풍가 감옥에서 쓴 작품이다. 그는 ‘4·12(1927) 사건’의 시위 현장에 참가하였다가 국민당에 의해 붙잡혀 3개월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500줄의 <사망의 신이 오기 전에>(1927. 6. 5)를 써서 《태양월간 太陽月刊》 4월호(발행: 1928. 4.1)를 통해 발표하였다. 《태양월간 太陽月刊》은 《창조월간創造月刊》과 함께 프롤레타리아 문학 계열의 작가들이 작품을 신던 대표 잡지 중의 하나였는데,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제창하려는 목적으로 장광츠(蔣光赤), 첸싱춘(錢杏邨), 멩차오(孟超)에 의해 설립된 태양사(太陽社)에서 발간한 잡지였다. 여기에 등재된 작품들은 혁명 투쟁의 경험과 고통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았다. 태양사 가입의 계기가 된 <사망의 신이 오기 전에>는 혁명 투쟁의 시어들을 중심으로 투사적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8) 胡源, <紅色鼓動詩的前奏曲 一般夫的長詩《在死神未到之前》>, 앞의 글, 44쪽.

9) 你的兒子不孝/不能奉養困苦的母親/永遠的告別了, 母親/拿回去我這熱顫的心//別了, 母親, 別了/此地是你兒子的冷吻/吻呀, 吻呀, 吻呀, 母親/請別祈禱著爲我的安寧//.....//別了, 朋友, 請別悲哀/你該了解我的苦心/死在等候著我/和他一起的還有光明//別了, 永久的長別了/快去, 了解了革命/努力的做人去/別空望著我的心影. 殷夫, <在死神未到之前>(《太陽月刊》4月號, 1928. 4. 1, 署名任夫), 《殷夫集》, 浙江新華書店, 1984, 136, 138쪽.

그런데 위의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주제와 정서는 정치 서정시에서 보여준 어머니와 친구 그리고 조국, 즉 타인을 향한 시선을 보여준다. “당신 아들의 차가운 입술인 이 땅에다/ 안녕하고 입 맞춥니다, 어머니/ 나의 평강위해 기도하지 마세요”와 “친구, 슬퍼하지 말게/ 자네만은 알아주시게, 쓰러린 내 마음을/ 나를 기다리는 죽음을”에서 보여준 희생적 자기인식은 좌·우 갈등시기 반대편에 의해 감옥에 갇힌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주창하는 17세 청년의 내면의식을 잘 드러낸다. 강인함을 말하는 “뜨겁게 요동치는 이내 마음”과 비장함을 간직한 “죽음”의 이미지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도 굴복할 수 없는 화자 자신에 대한 자의식의 표현이다.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광명”으로의 감정이입은 부자연스럽지 않게 다가온다. “얼른 가야하네, 혁명을 배우러”를 통해서 화자는 혁명 투쟁의 당위성을 극대화하여 현실의 고통스런 상황을 이겨내고자 한 것이다. <사망의 신이 오기 전에>와 시간적 배경이 이어진 <축복—— 祝——>에서도 이러한 의식을 찾을 수 있다.

용감한 우리 어린 꽃을 축복하소서/ 언제나 도도하게 주위를 둘러보게 하소서 / 그녀 쓸쓸하지 않도록 맑은 향기 풍기게 하소서/ 타고난 자태 나날이 빛나게 하소서/ 쓸쓸한 삶, 탄식 말게 하소서// 먼데 희미한 별빛 사라지고/ 용감한 영혼 외로워도/ 살이 에이도록 부는 찬바람 견뎌내는 그녀/ 굳건한 마음으로 무거운 짐 감당하며/ 죽음의 사막 언제 다시 소생할지 물어보게 하소서// 사막 한 가운데 맨 앞선 우리 들꽃을 축복하소서/ 홀로 하늘거리며, 맑은 향기 풍기게 하소서/ 가지 끝에 메말라 시든 잎도/ 다른 무리로 아름다움 견주지 말게 하소서/ 그녀만 홀로 맑은 향기 풍기게 하소서. 1928. 5. 8.¹⁰⁾

위의 작품은 <사망의 신이 오기 전에>를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발표한 작품이다. 좌·우가 싸우는 현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현장을 목격하면

10) 祝福我們勇敢的小花/她仍然孤傲地顧盼/她不寂寞, 放著清香/天生的姿容日日光煥/岑寂的生存, 沒有喟嘆//遠星的微光死滅/勇敢的靈魂孤單/她忍受冷風的吹刮/堅定的心把重責負擔/問何時死莫重蘇 魁//祝福我們沙中最先的野花/孤立搖曳, 放著清香/枝旁沒有鮮青的陰葉/也少異族來爭妍芳/祇她孤單地放著清香, 一九二八, 五月八日, 殷夫, <祝——>, 《殷夫集》, 앞의 책, 20-21쪽.

서 화자는 분명한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다. 그의 정서는 현실 사회의 갈등을 외면하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일이 낫설지 않으며 그 참여하는 용기로 충만한 그의 심정은 “굳건한 마음으로 무거운 짐 감당하는” 것처럼 결연하였을 것이다. 화자의 밝고 당당한 심정은 “사막 한 가운데 맨 앞선 우리 들꽃을 축복 하셔서/ 홀로 하늘거리며, 맑은 향기 풍기게 하소서”라는 문구에 집약된다. 그의 심정은 외롭게 하늘거리려도 맑은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길 원하는 상태에 있다. 참여와 헌신과 용기의 심정은 책상 위의 꽃병을 묘사한 아래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내게 있는 꽃병 하나/ 충직하고 믿음직한 나의 동반자/ 고독한 인생 여정 중에
내가 방황할 때/ 그녀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녀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 아
닐지라도/ 키츠濟慈의 천부적 시적 영감을 건져 올려서/ 자신을 그려내고 노래한
다/ 그녀는 지난날의 아름다움 뽐내지 않는다// 그런데 진실하고 도도한 그녀에
게/ 그만 내 마음을 주었다/ (애교스런 미소 띤 얼굴에, 아/ 정말 나는 뉘를 놓아
버렸다)// 내 책상에 오뚝이 서있는 그녀는/ 코사크족처럼 출중하고 당당하다/
그녀는 경교하는 기색으로/ 드러낸다. 충직하고 용감한 친구가 곁에 있다고/ 연
꽃 장미 꽃지 않은 그녀는/ (타인을 강렬하게 유혹하는 연꽃 장미)/ 들에서 꺾은
들꽃이고/ 꽃무리들 속의 하나이다// 사람에게 상처 입은 그녀들/ 운명의 판결문 상
소에 ‘짓밟혔다’/ 지금은 되레 무사의 투구 쓰고/ 자유의 광채를 뽐낸다. 1928.11)

위의 시는 책상 위의 꽃병을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감옥에서 나와 고향집
에 돌아와 고독과 방황의 지점에 서 있는 화자는 ‘도도함’과 ‘당당함’의 내면의
식으로 가득 찬 헌신적인 정신 상태에 있다. “고독한 인생 여정 중에 내가 방황

11) 我有一個花瓶/我忠實親信的同伴/當我躑躅於孤寂的生之途中/她作為上帝, 與我同在//她不是連城的奇珍/捕撈濟慈的詩靈/來把她描劃, 歌咏/她不閃放過往的風韻//然而她的正真和傲慢/正使我心醉/(那詭媚的笑臉, 唉/真是我靈魂的迫害)//她矗立在我案上/和一個哥薩克一般英壯/用她警告的神情/顯示忠勇的朋友在旁//她不插芙蓉和玫瑰/(這些, 讓他人狂味)/野花采自田野/集團中的成員//她們是被人摧殘/命運的判文上書“迫毀”/但於今是武士的頭盔/散發著自由的光彩。一九二八。殷夫, <花瓶>, 《인푸集》, 앞의 책, 26-27쪽. 영국 시인 존키츠(John Keats, 濟慈, 1795~1821)는 25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운명했다. <나이팅게일에게 Ode too Nightingal, 夜鶯頌>, <가을의 송가to Autumn, 秋頌>, <그리스 항아리에게 부치는 송가 On a Grecian Urn, 希臘古翁頌> 등이 대표작이다.

할 때/ 그녀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서 자의식이 강인해 질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한 화자는 “키즈濟慈의 천부적 시적 영감을 건져 올려서/ 자신을 그려내고 노래한다”라는 묘사를 통해 자신을 회복시킨다. “내 책상에 오뚝이 서있는 그녀는/ 코사크족처럼 출중하고 당당하다”에 드러난 내면의식과 용감한 친구가 곁에 있을 것이라는 신뢰성 있는 언어에서 헌신과 용기는 더욱 극대화된다. “상처 입은 그녀들/ 지금은 되레 무사의 투구 쓰고”로 연결되는 혁명 투쟁의 형상화 속에서 화자는 ‘자유’의 광채를 내 뿜을 것이다. 고향집에서 느끼는 화자의 자유를 향한 용기는 모성애와 그리움으로 이어지면서 이타적 세계를 보여주던 “어머니”를 향한 강한 종교적 믿음을 그려내고 있다.

당신은 동방의 마리아/ 삼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나는 보았다/ 자신의 고향을 다 쏟아 노쇠한 어머니는/ 모옥의 피바다에서 하늘에다 기도하셨다// 자신의 쓰디쓴 눈물을 삼키려고 어머니는/ 푸른 하늘 뜬 구름을 응시하시다/ 별빛 걸친 흰 옷 입은 천사되셔서/ 구름 끝에서 들락날락 하신다// 수천 년의 높디높은 토굴에서 태어나신 어머니/ 햇빛 썬 적 없는 생기 없는 풀을 닮으신 어머니는/ 침묵의 세월을 사시다가/ 삼중 십자가와 하나 되어 쓰러지셨다¹²⁾

위의 시는 인푸가 1928년 고향 象山의 四寺에서 썼으니 인푸가 출옥 후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는 헌신에 집중해 있었던 시인의 언어행위로서 종교적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어머니를 그리면서 “당신은 동방의 마리아”라고 부른 것은 어머니의 희생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거기에서 정작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와 같은 희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다. 화자는 자신이 어머니를 닮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체가 지켜본 어머니를 닮아가고자 한 것이다. 희생을 실천하려는 자신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아는 인푸가 지속적으로 추구

12) 你是東方的瑪利亞/我見釘在三重十字架之上/你散披著你苦血的黃髮/在侮辱的血泊默禱上蒼//你進流你酸苦淚水/凝視著蒼天浮雲/衣白披星的天使/在雲端現隱//你生於幾千年來高樓的地窟/你長得如永不見日的蒼悴地草/默靜的光陰逝去/你合三重十字架同倒。一九二八，於西寺。殷夫，〈동방의 마리아-어머니에게 바친다東方的瑪利亞一獻母親〉，《殷夫集》，앞의 책，36쪽.

해오던 자아의 모습과 겹쳐지는 이타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쓰디쓴 눈물을 삼키려고 푸른 하늘 뜯구름을 응시하던 어머니를 기억하고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화자는 스스로 삼중 십자가와 하나 되어 쓰러지려는 심정이 되었다.

<동방의 마리아-어머니에게 바친다東方的瑪利亞—獻母親>는 어머니의 희생을 노래한 시를 통해 어머니의 희생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지닌 주요한 함의는 시인 스스로 성취하고자 했던 이타적 자아의 발견과 성취이다. 인푸는 이러한 자아의 이타성으로 인해 이제 이타적 세계와의 합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보편적인 모습을 지닌 어머니의 구체적 이미지와는 어울린다고 할 수 없는 “혁명”의 투사적 투박한 형상에 다 동일화시킨 자의식을 드러내는 시인에게 이제 어머니의 이타적 형상은 실천가능한 일이 되었다. 어머니는 늘 하던 희생적 자세로 그대로 있었으나 주체가 실천하고자 하는 희생적 심정에 의해 어머니의 십자가가 드러난 것이다. 주체의 희생에 의해서 십자가는 어머니라는 객체의 희생으로 인한 십자가처럼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졌다. “혁명 위업의 완성”¹³⁾으로 인해 시인은 헌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때 시인의 내면의식은 헌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도 불사하는 정신 상태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3. 사랑의 확산과 연대의식(동지애)의 작동

1929년 상하이로 돌아온 인푸는 세 번째로 구속되는 등 어려움과 위험성을 인식했으나 그러한 혁명의 기운이 거세질수록 그것의 일상성과 익숙함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로 인해 그의 성취감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익숙한 혁명 투쟁이 주는 용기와 함께 마주한 혁명시대가 주는 이타적 헌신은 사명의식이 되었다. 그가 발표한 작품을 보면 그는 반제국주의 압제

13) 吳思敬, <還原殷夫的藝術個性>, 앞의 글, 120쪽.

에 항거하는 작품을 통해 혁명투쟁으로 말미암은 헌신이나 성취감을 드러내었다. 또한 이타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인푸에게 압제받는 노동자 농민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사랑으로 수용되었다. 더욱이 인푸는 노동자 농민을 끌어안는 헌신적 사랑을 실천해야만 했다. 아래 시는 스스로 일어나 항거하는 노동자 농민의 심상을 이미지화하고 있다.

—보아라, 압박당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개 같은 너희 모습을 벌써 다 아는/
스스로 무기 들고 나온 그들을/ 모든 적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들을 //—보아
라, 다시는 속지 않을 그들을/ 스스로 일어나 투쟁하는 그들을/ 그들이 잘 아는
가면 뒤의 너희는/ 흉하고 흉악한 악마의 모습이로다¹⁴⁾

장광츠, 귀모뤄(郭沫若)의 정치 서정시를 계승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가인 인푸는 투사적이고 이타적인 세계에 관심을 집중한 시인이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을 드러낸 시인이 노동자 농민의 압제를 목격했을 때 다짐해야만 했던 정신적 연민과 사랑은 매우 대단했을 것이다. 헌신적 사랑은 아주 특수한 것이어서 “사랑은 공통의 사적 세계를 배타분화하기 위한 조건이 되며, (개인이 극도로 개인적인 체함에 머물면서도) 모든 사람이 타자의 세계를 같이 짊어지도록 만드는 것”¹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상당히 격앙된 어휘를 통하여 그 사회적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홍색고동시의 전주곡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원인이었다. “압박당하는”이 제시하는 노동자 농민의 형상 앞에서 화자는 그 사랑의 확신을 스스로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기를 들고 나오는” 행위를 하며 “스스로 일어나 투쟁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에 대한 확신은 완전히 드러난다. 즉 ‘스스로 일어나 무기 들고 나와 모든 적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들’, ‘스스로 일어나 투쟁하는

14) —看, 看, 那些被壓迫的工農/都已把你們狗東西面目看清/他們要自己拿起武器來了/他們要殺盡所有的敵人//—看, 他們不再受欺/他們要自己起來抗爭/他們深明你們的假面的後方/有個魔貌是凶厲猙獰. 殷夫, <在死神未到之前> (《太陽月刊》 4月號, 1928. 4. 1, 署名任夫), 《殷夫集》, 앞의 책, 121쪽.

15) 지크프리트 슈미트, 박역성 역, 《구성주의 문학체게이론》, 책세상, 2004, 167쪽.

그들의 행위는 노동자 농민을 해방시키고 싶은 인푸의 간절한 심정과 노동자 농민을 의지적으로 믿고 싶은 자기 연대의식, 즉 동지애를 내포한다. “다시는 속지 않을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노동자 농민에 대한 의도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흉악한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은 노동자 농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 것이다.

‘五·卅’운동에 가담하고 ‘4·12 사건’에 참여하는 등 투사적 삶을 연이어서 체험했던 인푸에게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게 한 것은 투쟁에의 의지였을 것이다. 인푸가 체험한 투쟁적 사랑은 그것이 반제국주의와 좌·우 갈등의 시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겹쳐 있었기에 더 가중되었다. 그래서 인푸는 반제국주의와 좌·우 갈등 시기의 현실에 관한 사회적 사랑을 형상화한 작품을 남겼다. “인푸는 다수의 애정시에서 특수한 사랑을 묘사했다. 그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혁명가의 기질을 표현했다”¹⁶⁾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인푸의 헌신과 사랑은 주로 혁명 체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출렁이는 지축을 감지한 나는 / 자애롭고 후덕한 어머니의 몸 속에서/ 터질 화산을 베고 있는 나는/ 시뻘건 불을 뿜을 화산구이다// 높은 산꼭대기에 붙어대는 차가운 바람/ 사방에 내려앉은 을씨년스런 땅거미/ 상심한 곡조로 청아하게 우는 가을벌레/ 낙락장송을 비웃는 초승달// 밤빛이 질푸르다. 가을 화폭이/ 광명한 우주를 삼켰다/ 내 컷가에 울리는 미래의 예언은/ 아, 하나의 음악이요 노래다// 터질 화산을 베고 있는 나는/ 시뻘건 불을 뿜을 화산이 되련다/ 내가 흘린 피가 울이 되고, 뼈는 재가 되어도/ 나는 침착한 죽음을 기도하리라. 1928. 西寺에서¹⁷⁾

16) 殷夫的不少愛情詩，抒寫了一種特殊的愛，這，表現了一個革命者在私生活中的先人後己的品格。陸耀東，〈群山中的一座高峰－論殷夫的詩〉，〈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2006年第8期，武漢大學文學院，71쪽.

17) 我微覺地心在顫戰/於慈大容厚的母親身中/我枕著將爆的火山/火山的口將噴射鮮火深紅//冷風颯嘯於高山危巔/暮色猙獰地四方迫攏/秋虫郎吟頹傷歌調/新月冷笑著高微長鬚//青碧的夜色，秋的畫圖/吞噬了光明的宇穹/我耳邊震鳴著未來預言/一種，呵，音樂和歌咏//我枕著將爆的火山/火山要噴射鮮火深紅/把我的血流成小溪，骨成灰/我祈禱著一個死的從容。一九二八，於西寺。殷夫，〈地心〉，〈인푸集〉，앞의 책，38쪽.

위의 시 역시 인푸가 '4·12 사건'의 참여로 구금되었다가 출옥 후에 고향 象山의 四寺으로 돌아가 쓴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익숙하고 특수한 혁명의 열정을 고향에서 체험한 화자는 그것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겪어야 했다. 열정이 끓어오르는 모습은 “출렁이는 지축”의 상태였으며 고향의 평안한 곳에서 화자는 “자애롭고 후덕한 어머니”를 잃어냈다. 끓어오르는 내면의식으로 인하여 화산처럼 뜨거운 심정에서 화자는 “내가 흘린 피 개울이 되고, 빠는 재가 되는” 것과 같은 헌신을 다짐했다. 적극적 헌신의 심리상태에 놓인 화자는 화산처럼 “시뻘건 불을 내뿜고자” 몸살을 알아야만 했다. 열정의 체험은 회피나 도피보다는 헌신과 사랑을 더 많이 일깨워주었다. 결국 화자는 이러한 자원하는 뜨거운 열정을 불을 내뿜는 화산으로 상상하는데 이는 헌신과 사랑에 속히 참여하려는 연대의식(동지애)의 작용이었다. 아래 작품에는 투사적 혁명의 삶 속에서 지친 중국인의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군중 속에 들어간 나는 크게 외친다/ “우리……우리……우리……”/ 회고 붉은 오색 종이/ 아침햇살 속에서 펄럭이니 비둘기 떼 같다// 아, 응답의 메아리/ 거리에 충만한 우리의 호소/ 나는 하나 된 아우성의 거센 물결로 스며든다/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정신// 거리에 온통 노동자, 동지—우리/ 거리에 온통 거친 함성/ 거리엔 온통 기쁨의 웃음/ 밤의 적막이 짝 사라진다¹⁸⁾

<1929년 5월 1일 一九二九年的五月一日>은 “자신의 출신 계급과 고별하고 혁명의 격류 속으로 투신하여 자신을 민중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써, 개인이 프롤레타리아 사회에 섞이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했다”¹⁹⁾라는 인푸에 대한 평가를 실감나게 한다. 개인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군중 시위 속에서 얻은 성취감을 형상화시킨 작품이다. “나”가 아닌 “우리”라는 어휘를 통해 희생의

18) 我突入人群，高呼：//“我們……我們……我們……”/白的紅的五彩紙片/在晨曦中翻飛象隊鴿群//阿，響應，響應，響應/滿街上是我們的呼聲/我融入於一個聲音的洪流/我們是偉大的一個心靈//滿街都是工人，同志——我們/滿街都是粗暴的呼聲/滿街都是喜悅的笑，叫/夜的沉寂掃蕩淨盡。殷夫， <一九二九年的五月一日>（《萌芽月刊》 第1卷第5期 《五月各節紀念號》，1930. 5. 1），《殷夫集》， 앞의 책， 161쪽.

19) 錢理群·溫儒敏·吳福輝， 《中國現代文學三十年》， 앞의 책， 354쪽.

대상인 개인을 사회화시킨 것에는 생각과 행위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투사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희생 의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희생 의식 속의 헌신은 “우리를 하나의 위대한 정신”으로 만들고 또한 “우리를 연대의식(동지애, 동지—우리)화” 시킨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거친 합성 소리를 들으며 참여하는 “나”를 공동체가 된 “우리”로 형상화하는 구절에는 투사적 삶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과 사랑의 심정이 내장되어 있다. 더욱이 그 개인의 소리가 ‘응답의 메아리가 되어 거리에 충만하다’는 토로 속에서 헌신을 넘어 연민과 사랑에 충만한 내면의식을 살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희생적 실존에 관하여 화자는 그것을 실제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헌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개인을 우리가 되게 한 것은 다음 연에서 나오는 사랑스런 “응답의 메아리”에 의해서 충분히 합리화된다.

‘더운 공기가 뿔어져 나오는 공장의 쉼 없이 돌아가는 기계소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힘의 대의’²⁰⁾속의 개인을 보고 인도적인 분노를 느끼며 동지처럼 타자를 살려내기 위해 호소하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화자에게 진심을 담은 함성과 웃음은 꼭 필요한 행위일 것이다. “노동자, 동지”를 지켜야만 유지될 수 있는 공장은 인푸가 추구한 문학적 삶과 조화로운 공간이었다. 적극적인 함성과 기쁜 웃음을 창출해야 하는 정당성을 지향하는 삶 속에서 시인은 그 헌신과 사랑의 객관적 상관물을 자아의 실존에서 찾음으로써 혁명시대 시인으로서의 사유의 리얼리티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20) 더운 공기 내뿜는 공장/ 지치지 않는 기계소리/ 이 우주의 선율/ 살아서 움직이는 힘의 대의 工厂 撒出暖的空气/机器的聲音沒有億疲/這儿宇宙是一个旋律——/生的, 動的, 力的大意. 殷夫, <一九二九年的五月一日>(《萌芽月刊》 第1卷第5期 《五月各節紀念號》, 1930. 5. 1), 《殷夫集》, 앞의 책, 156쪽.

4. 사회적 자의식을 통한 실재적 희열

혁명에 투신하는 삶, 노동자 농민을 향한 연대의식(동지애), 고향에서의 특수한 혁명 열정 체험 등 부단한 헌신과 사랑의 개인을 세워나가야 했던 인푸는 그의 힘든 삶을 의지하고 상처 입은 정신과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위로의 언어가 필요했다. 인푸가 이타적 세계관에 천착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인푸가 쓴 시에는 개인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특수한 사랑이 담겨있는데, 그것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²¹⁾이다. 인푸는 1927년 가을 同濟 대학²²⁾에 들어가 독일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주로 프롤레타리아 문학계열의 잡지인 《태양월간》, 《척황자 拓荒者》, 《맹아월간 萌芽月刊》²³⁾을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는데, 그는 이들 잡지에 이타적 사랑을 담은 <선서 宣詞>, <고요한 밤 夜的靜>, <꽃병>, <동방의 마리아>, <그대에게 給——>, <끝말 Epilogue> 등을 발표하였다. 인푸는 후스(胡適)의 구태의연함에 대한 변화²⁴⁾를 요청하는 글을 통해 이타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
- 21) 陸耀東, <群山中的一座高峰——論殷夫的詩>, 《武漢大學文學院》 第8期, 2006, 71쪽.
- 22) 인푸가 1927년에 입학했던 同濟 대학은 기독교인이었던 의학박사 에리히 파울룬(Erich Paulun, 埃里希 宝隆)이 설립한 학교이다. 1907년 에리히 파울룬은 오스카폰 샵(Oscar von Schab), 파울 크라이크(Paul Krieg)와 함께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일어 의학당'을 설립했다. 이 '독일어 의학당'이 1912년 공학당과 합병되어 '同濟 대학'이 되었다. 1923년부터 정식대학이 되었고, 1927년부터 '국립 同濟 대학'이 되었다. 2000년 4월 상하이 철도대학과 합병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3) 《태양월간》(1928. 1 창간), 《척황자》(1930. 1 창간)은 태양사 주관 잡지이고 《맹아월간》(1930. 1 창간)은 루쉰魯迅·펑쉐펑馮雪峰이 주편한 잡지이다.
- 24) '4·12 사건'(1927)을 계기로 국·공 합작이 결렬되면서, 충격을 받은 문학계 일부는 사회주의를 수용하였고, 사회주의를 수용한 창조사(創造社), 태양사(太陽社) 중심의 좌익계열의 문인들은 문학개혁의 주된 구호를 이전까지 외치던 '문학혁명'이 아니라 '혁명문학'으로 바꾸었다. 당시 혁명문학을 주창하던 좌익 계열의 젊은 작가들은 문학혁명을 제창하던 문학연구회는 물론 후스나 루쉰 등 당시 기성문인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기 마련/ 양약은 입에 쓰기 마련/ 그래도 당신은 믿어야만
 해요/ 내 뼈가 불에 녹은들/ 내 충심은 끝내 하나라는 것을// 나으리, 모든 이의
 나으리/ 죽음이 우리 둘 머리맡에 와있어요/ 그저, 다만 당신이 조금만 변해주신
 다면/ 주인과 노예 모두 살 수 있사오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단장을 해
 주세요! 1930년 1월 19일²⁵⁾

<슬픈 노예의 눈물——후스 선생께 바친다 奴才的悲淚——獻給胡適之先生>은 인푸가 죽기 1년 전에 쓴 작품이다. 이 시에서 생명과 죽음은 서로 상충된 관계가 아닌데, 이러한 생사(生死)의 조화로운 세계에 관한 인식은 “주인과 노예 모두 살 수 있으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단장을 해주세요”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즉 조화로운 생존에 대한 간구를 통하여 화자의 육체는 소멸할지라도 그의 정신과 영혼은 이타적 사랑에 의하여 미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죽음을 넘어서는 헌신과 사랑이 현실화될 때 얻게 되는 희열은 이타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인푸는 “개인의 정감을 민중의 감정으로 연결시키고 ‘나’를 ‘우리’로 연결시킨 시가언어를 창조하여”,²⁶⁾ “개인의 감정을 통하여 사회 환경적인 어두움과 위험을 표출”²⁷⁾하는 것을 통해 사랑과 헌신을 자신의 시 의식 속에 담아내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인푸는 1930년 1월 10일 《척황자》에 발표한 시리즈 형식의 <우리의 시 我們的詩>²⁸⁾ 6편에는 각각 <전조등 前燈>, <로맨틱 시대 Romantik的時代>, <선구자 Pionier>, <침묵의 굴뚝 靜默的烟囱>, <죽은 자는 죽게 두라 讓死的死去吧>, <결의 決議>라는 소제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작품들을 통해서 헌신과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위한 통과의례로서의 죽음을 드러

25) 是的, 忠言逆耳/是的, 良藥苦口/但你不能不相信/即使火化了我的骨頭/我始終未二我的忠心/主吻, 萬主的主/死迫在我兩頭頂/祇有, 祇有你把手段稍改變/主奴倆還得一時逃成生/“至少”, “至少”你要把粉搽搽臉. 一九三〇, 一, 一九. 殷夫, <奴才的悲淚——獻給胡適之先生>(《巴爾底山》第1卷第1號, 1930. 4. 11), 《殷夫集》, 앞의 책, 192쪽.

26) 黃健, <論殷夫政治抒情詩的創作個性>, 앞의 글, 7쪽.

27) 陸耀東, <群山中的一座高峰——論殷夫的詩>, 앞의 글, 72쪽.

28) 시리즈로 엮어 발표된 <우리의 시 我們的詩>는 《殷夫集》(앞의 책) 170-175에 수록되어 있다.

났다. <전조등 前燈>의 “타오르는 밝은 전조등/광명만세(染上灼光的前燈/光明萬歲)”, <로맨틱 시대 Romantik的時代>의 “공장안은 온통 생명(工廠裏, 全是生命)”, <선구자 Pionier>의 “승리의 새벽/ 태양은 영광의 노을로 내달린다(胜利的清晨/太陽馳上光霞)”, <침묵의 굴뚝 靜默的煙囪>의 “승리할 때/ 기적은 우리의 기쁨을 노래하리라(勝利時/汽笛將歌咏我們的歡欣)”, <결의 決議>의 “결의한 뒤, 우리 모두 웃었지(決議後, 我們都笑了)” 등에 드러난 희열의 자의식은 생명의 현실적 연속성에 맞물려 있다

죽은 자는 죽게 두라/ 그들이 흘린 피 헛되지 않다/ 미소 머금은 채 길 위에 누워있는 그들은/ 문안하듯 우리 향해 공손하다/ 지도로 그려진 그들의 피에/ 수많은 농촌 도시가 벌겍게 물들었다/ 영광스럽게 죽은 그들이기에/ 그들을 향해 눈물도 흘릴 수 없는 우리/ 조준한 적들에게/ 우리 행복하지 말자// 죽은 자는 죽게 두라/ 그들이 흘린 피 헛되지 않다/ 우리 슬퍼말고 탄식말자/ 멀고 먼 길 앞에 가로놓여있으니// 가자/ 투쟁 소식을 누설하지 마라/ 그들은 책임 다했으니/ 우리도 정신 차리자²⁹⁾

위의 시에는 죽은 자의 흘린 피를 헛되지 않게 해야 할 사명감을 지닌 생존자를 주인공으로 삼은 극적인 이미지가 있다. 죽어서 길가에 누워있는 그들의 피가 도시와 농촌을 온통 벌겍게 물들었다는 내용은 매우 현실적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실성과 생사를 넘어서는 조화로움이 이 시의 특징과 의미를 규정하는 요인이었음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가 드러내는 현실성은 인푸가 마주해야 했던 격동적인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는 분명한 서사 양상을 지녔다. 주인공 생존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행위는 격동적인 현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길바닥에 방치되어 있는데 “미소를 머금었다”라고 느끼는 생존자의 태도에 대한 형상화의 방식에서 희생적 죽음을 바라보는 행위의 과정

29) “讓死的死去吧/他們的血并未白流/他們含笑的躺在路上/仿佛還誠懇地向我們點頭/他們的血畫成地圖/染紅了多少農村, 城頭/他們光榮地死去了/我們不能向他們把泪流/敵人在瞄準了/不要舉起我們的手//讓死的死去吧/他們的血并未白流/我們不要悲哀或嘆息/漫漫的長途橫在前頭//走去吧/關爭中消息不要走漏/他們盡了責任/我們還要抖擻” 殷夫, <我們的詩 - 讓死的死去吧>(<拓荒者> 第1卷第1期, 1930. 1. 10), <殷夫集>, 앞의 책, 174쪽.

을 통해서 생과 사의 조화로운 환희를 찾으려는 의도를 헤아릴 수 있다.

군중의 거센 물결 내 뒤에서 찾아진들/ 나는 마음만은 어두운 감옥에 굴복 않
으리라/ 우리는 마음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리라/ 마땅히 우리를 빼는 재가 되고
살은 진토가 되겠지// 5·1제는 우리의 쫓기대회/ 우리의 시위는 승리의 전제/
미래 세상은 우리들 것³⁰⁾

위의 시 역시 서사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 시의 주인공은 감옥도 두렵지 않은 나와 마음으로 합해진 우리이다. 나의 생명과 죽음은 피 흘리며 희생한 죽음의 가치를 인식하는 <죽은 자는 죽게 두라>의 생존자의 경우와 닮아 있다. <1929년 5월 1일>의 나 역시 현실에서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우리는 뼈가 타고 살이 녹는 현실을 배경으로 “승리가 전제된 미래 세상” 같은 희망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완성시키는 사명과 승리의 열정을 완성시키는 사명을 연합시키는 삶을 살고자 했다. 나와 우리의 죽음은 열정적 승리를 확장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죽음은 비극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희망을 통합시키기 위한 마음가짐으로서의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포함한 우리는 가치 있는 죽음에 대한 의식을 통해 생사의 경계를 뛰어넘는 조화로운 생존의 기쁨을 체득하게 된다. 생명의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현실적 리얼리티가 내장된 나와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는 헌신과 사랑으로 충만한 시인의 의식에 큰 성취감을 주는 하나의 위로였다. 이러한 성취의 서사를 통해 시인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생존에의 의지에 대해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푸는 <죽은 자는 죽게 두라>, <1929년 5월 1일> 등 실제적인 리얼리티가 다분한 작품 속에서 드러낸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애정 어린 생명의

30) 群眾的高潮在我背后消去/黑暗的囚牢却沒把我心胸占据/我們的心是永遠祇一個/無論我們的骨成灰，肉成泥//我們的五一祭是誓師禮/我們的示威是勝利的前提/未來的世界是我們的。殷夫，〈一九二九年的五月一日〉(《萌芽月刊》第1卷第5期 《五月各節紀念號》，1930. 5. 1)，《殷夫集》， 앞의 책， 163쪽.

리얼리티를 드러내거나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때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실제적이고 의도적이었다. 이러한 시가 내장한 죽음의 희생은 인푸에게 정신적인 현실성으로 다가왔으며 시인을 혁명적이고 정신적인 투쟁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는 혁명시대라는 공간에서 실제투쟁을 문학과 연결시키고자 <과거 문화운동의 결점과 지금의 임무 過去文化運動의缺點和今后的任務>에서 아래와 같이 다짐했다.

실제투쟁의 기초가 없는 문화운동은 죽었고 실패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진창길을 걸어갈 수 없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진정한 문화운동 역시 실제작업은 분명히 어렵다는 것을. 게다가 실제투쟁과 연결된 문화운동으로만 현재 단계의 임무를 완결할 수 있다는 것을. …… 문화운동 중에서 문학운동과 희극운동은 원래 힘 있는 예리한 도구이다.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이것들이 모두 계층운동이었다. 문학운동은 완전히 일부 학생 지식인을 위한 호소였음은 물론이고 희극운동 역시 노동자 농민 계층이 빠진 작업들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대중화는 효과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³¹⁾

인푸의 문학이론 같은 위의 글에서 그는 문화운동의 방향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힘 있는 예리한 도구”로서의 문학운동에서 인푸는 효과적인 방향을 찾고자 했다. 이는 그의 투사로서의 독특한 이력과 프롤레타리아 문인으로서의 문학적 성취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즉 ‘5·卅’(1925) 운동, ‘4·12 사건’(1927)에 직접 가담한 투사와 좌익프롤레타리아 문인으로서의 분명한 혁명가로서의 모습에서 인푸의 투사적인 모습과 의지의 강인함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인푸는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을 향한 강인한 애정과 의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는 이타적 기쁨

31) 沒有以實際鬥爭爲基礎的文化運動，是過去了，是失敗了。我們不再能沿這條泥路走去。我們要了解，真正的文化運動也無疑是一樁艱苦的實際工作，而且祇有與實際鬥爭連結著的文化運動，才能完成目前階段的任務。……文化運動中的文學運動，戲劇運動，本來是一種有力利器，可惜在過去，這些都是一些階層的運動，不但文學運動完全祇号召一部分學生知識分子，就是戲劇運動也沒有在工農群衆做過些工作，這是不行的，今后須效力求其群衆化。殷夫，〈過去文化運動的缺點和今后的任務〉（《列寧青年》第2卷第6期，1930. 1. 1），《殷夫集》，앞의 책，310, 311쪽.

의 한가운데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러한 연유에서 인푸는 <사망의 신이 오기 전에> 이후 혁명고동시를 발표했던 것이다. 인푸는 문학이나 삶에서 긴장감을 지닌 채 시대적 격랑에 맞서는 모습을 지닌, 즉 '개성적인 시적 주체로서 궁극적으로 시인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차원으로'³²⁾ 굳건하게 서있고자 했던 것이다.

5. 결론

인푸는 개인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지닌 시인이다. 격랑의 혁명시대에 표출했던 헌신과 사랑은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인푸의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시에 드러난 헌신과 사랑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2장은 투쟁적 혁명적 희생에 관한 헌신을 이미지화한 작품을 살폈다. 학창 시절 좌·우의 갈등과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인해 벌어지는 시위에 참여하면서 투쟁은 시인에게 매우 익숙했다. 투쟁이 낯설지 않았던 시인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현장에서 사회적 헌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결국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기를 거듭한 시인은 일상적으로 투쟁을 목도하게 된 현실 앞에서 변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려는 이타적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다.

3장은 노동자 농민의 사회적 곤고함을 타개해주는 사랑을 이미지화한 작품을 살폈다. 인푸에게 프롤레타리아는 혁명 그 자체였다.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인푸의 관심은 차츰 혁명에 대한 참여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는 외면할 수 없는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혁명과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의대의식(동지애)으로서 혁명의 열정을 분출하거나 이것에 참여하려는 자의식을 표출했다.

4장은 이타적 세계관을 추구한 조화로운 생존에 관한 시와 생사의 조화로우에 관한 시를 살폈다. 인푸는 투쟁의 희생적인 헌신과 프롤레타리아 사랑을

32) 張冬天, 《七月派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141쪽.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타적 조화로움과 생사의 조화로움을 표출했다. 그의 몸은 프롤레타리아에 속해있고 그의 정신은 이타적 자아와 생사의 조화로움에 있었다. 이때 인푸가 체험하게 되는 생의 기쁨과 희열은 실재적이면서 리얼한 측면이 강하다. 인푸가 헌신과 사랑을 표출하고 실천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이타적 세계관과 사실적 죽음의 희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푸의 삶을 표출한 헌신과 사랑의 서사는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동시에 걸쳐있다. 인푸는 노동자 농민을 향한 연대의식(동지애), 투쟁적 희생과 투사적 혁명체험, 이타의 세계에 참여하려는 헌신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헌신에의 관심은 프롤레타리아 경험을 통하여 극대화되어 그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였다. 나아가 인푸가 개성적인 시적 주체로서 보여준 헌신과 사랑의 서사는 그의 시가 지닌 개인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증명하는데 기여하였다.

< 參考文獻 >

- 殷夫, 《殷夫集》, 浙江新華書店, 1984.
- 張新, 《20世紀中國新詩史》, 復旦大學出版社, 2009.
- 張冬天, 《七月派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吳思敬, < 還原殷夫的藝術個性 >,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第9期, 首都師範大學中國現代研究中心, 2011.
- 胡源, < 紅色鼓動詩的前奏曲——殷夫的長詩《在死神未到之前》 >, 《新余高專學報》第11卷第4期, 2006.
- 黃健, < 論殷夫政治抒情詩的創作個性 >, 《浙江旅游職業學院學報》第8卷第1期, 2012.
- 任懷, < “別一世界”的雄聲——論殷夫的詩 >, 《新余高專學報》第3期, 齊齊哈爾師範學院學報, 1983.
- 陸耀東, < 群山中的一座高峰——論殷夫的詩 >, 《武漢大學文學院學報》第8期, 2006.

< Abstract >

The Love and Dedication in Yin-fu's Poetry

Kim, Jungsook

Yin-fu, with his poems, attempted to achieve harmony of the individual and society. H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modern Chinese poetry. During the revolutionary era, he expressed various lyrics of dedication and love during turbulent times. This book deals with the study of the inner consciousness of devotion and love that appears in the poems of Yin-fu.

The social realities that Yin-fu conceived as a teenager brought to life a sense of social dedication. When he spent his school days in Shanghai, demonstrations erupted due to the conflict between left and rightists. He, who has always witnessed these conflicts, finds in himself an altruistic self interested in working class and farmers. For Yin-fu, the proletariat was the revolution itself. His interest in proletariat made him grow a sense of optimism about the revolution. He vented his revolutionary enthusiasm with a solidarity with his revolutionary life and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revolution. He revealed his altruistic view of the world to achieve the sacrifice of the revolution and love for the proletariat. His body belonged to a proletariat and his mind had an altruistic view of the world. The joy and euphoria that Yin-fu has experienced was realistic. He offered altruistic view of the world and realistic sacrifices as a way to express and practice his dedication and love.

The epic of dedication and love that dominated the world of Yin-fu's works overlapped with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Yin-fu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solidarity toward workers and farmers, sacrifices, revolutionary experiences, and altruistic participation. This interest in dedication was maximized through the experience of proletariat, which led him to practice greater love. Furthermore, Yin-fu's epic of devotion and love contributed to a

unique character -which reflects both the individuality and social nature- of his poems.

Key words: dedication, love, altruistic view, revolution, conflict between left and rightists, solidarity, altruistic participation, realistic joy and euphoria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01.25	2019.02.13	2019.02.27	2019.03.04	2019.03.31

